

함평, 대동면 골프장 개장 앞두고 특혜 논란

“달콤·간간한 과즙 맛보세요” 장성 분향 찰토마토 본격 출하

진입로 문평→동함평IC 명시 허가 2년 뒤 실시계획인가 조건서 삭제 “월세 낭비 막기 위한 결정” 해명

함평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회 진출입로 개설을 골프장 허가 조건으로 내세웠다
가 개장을 앞두고 슬그머니 삭제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1일 함평군과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일원 160만여㎡의 부지에 오는
4월 준공을 목표로 B컨트리클럽 조성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이곳은 A건설사가 짓고 있는 대중제 골프장
으로 27홀 규모의 그린과 숙박시설, 골프빌리

지 등이 함께 들어선다.

함평 대동면 골프장 조성사업은 B사가 지난
2008년 함평군에 근거시설사업 실시계획인
가를 냈으나 사업 기한인 2015년까지 이행하지
못해 좌초됐다.

이후 A사가 2019년 인수 후 재추진됐다.

하지만 주민들이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
하며 담보상태에 놓이다, 진입로를 인접 고속도
로 문평IC가 아닌 동함평IC를 통해 진입하도록
개설하겠다는 약속을 함평군과 하고 난 이후 실
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문평IC에서 차량으로 불과 5분 거리인 골프
장을 동함평IC를 통해 진입할 경우 인근 대도시
인 광주지역에서는 20여분이 초과 소요된다.

반면 함평읍을 인접한 도로로 이동하다 보니
골프장 이용객들이 함평 내에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등 소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함평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골프장
측이 당초 계획한 문평IC 연결도로에 대해 폐쇄
하거나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조건으로 2021
년 3월 실시계획인가를 결정했다.

하지만 골프장 준공을 앞두고 지난 1월 16일
고시된 함평 근거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
획(변경)인가 조건에서는 관련된 조항이 삭제
됐다.

당초 골프장 인가 당시 함평군은 9개 읍면의
주민 여론조사 결과 압도적으로 동함평IC를 거
쳐 골프장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
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지난 2021년 4월21일 보도자료에
서 “사업시행자인 컨트리클럽 측은 골프장 진
출입로를 나누 문평IC 인근에 조성하는 실시계
획인가를 함평군에 요청했으나 지역경제 활성
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평IC에서 동함평IC

부근으로의 진출입로 변경을 사업시행자 측에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시행자 측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함평군민의 의
견을 전폭적으로 수용, 진출입로 변경을 결정
했다”면서 “이는 군민의 뜻과 군수의 경영
CEO 마인드가 더해진 최선의 결과”라고 홍보
했다.

이 같은 주장이 불과 2년 만에 바뀐 셈이다.
함평군은 “문평IC 진출입로와 동함평IC를 통
해 들어오는 차량의 도착시간이 별반 다를 바
없이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함평군이 당초 요구한 방향으로 골프
장 진입도로를 낼 경우 도로개설 비용이 군이
부담해야 된다”며 “월세 낭비를 막기 위해 골프
장측이 요구한 대로 도로를 개설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고 말했다. /함평=윤예중 기자

토마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맛으로는 첫손에
꼽는다는 ‘장성 분향 찰토마토’가 최근 출하를
알렸다.

장성군 남면 분향리 일대에서 생산되는 분향
찰토마토는 어린아이 주먹만 한 크기에 연한 빛
깔을 지녔다. 껍질은 무른 감 없이 고르게 단단
하다.

외모가 평범해 보인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
한 입 베어 물면 분향 찰토마토가 왜 다른 품종
보다 2-3배 비싸게 거래되는지 알 수 있다. 껍
질 안쪽에선 달콤한 과즙이 톡 터지고, 속에서
는 상큼하면서도 간간한 맛이 기본 좋게 퍼진
다. 껍질이 단단하다 보니 식감도 상당히 좋다.

맛의 비결은 특화된 재배 방식과 경험 그리고
자연에 있다. 최소한의 수분만 작물에 공급하는
건조농법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25년 이
상 축적해 온 농사 경험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토마토를 빚어낸다. 여기에, 불태산 맑은 바람
과 남면의 비옥한 땅이 건강함을 더한다.

남면과 광주첨단 장성로컬푸드직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특히, 2월 하순에 생산되는 분
향찰토마토가 가장 맛이 좋다. 가격대는 2kg기
준 8,000원에서 1만 6,000원 사이다.
/장성=전일용 기자

무안-목포, 고향사랑 상호 기부

무안군과 목포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
부를 통해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
을 모으기로 했다.

무안군 민원지적과와 목포시 민원봉사실 직
원 40여 명은 최근 고향사랑기부금을 교차 기부
하며 두 지자체 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응원했다.

무안군과 목포시는 서로 인접한 지자체로 주
민 생활권과 경제권을 공유하고 있어 관광·경
제 분야에서도 꾸준히 교류를 이어 왔으며, 이
번 상호 기부를 계기로 유대감을 강화하고 교
류의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무안=박주현 기자



무안군 민원지적과와 목포시 민원봉사실이 최근 고향사랑기부금을 교차 기부했다.

/무안군 제공

해남 고향사랑기부금 1억 돌파

해남군이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1억원
을 돌파했다.

1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332명이 고향
사랑기부에 참여해 1억 60만원을 기부했다.

금액별로는 총 기부자의 78%인 259명이 전
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원을 기부했
고, 1인당 평균 약 3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최대 금액인 500만원 기부자도 10명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70명, 전남 66명, 경기 64명
순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부자가 전체 기부
자의 과반수를 차지했다.
특히 기부자들이 선택한 답례품으로는 쌀, 해
남사랑상품권, 고구마빵, 고구마, 곱창김 순으
로 주로 해남의 대표 농특산물을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해남군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이 1억원 달성에 따라 해남미소와 함께하는 고향
사랑기부금 1억원 달성 기념 이벤트를 추진
한다.
오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남군에 고향
사랑기부금을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이벤트 행
사에 참여한 100명에게 선착순으로 해남군 직
영소秉물인 해남미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e상품권 1만 포인트가 주어진다.
/해남=박병태 기자

신안 항일농민운동 8명 독립유공자 서훈

건국포장 2명·대통령표창 6명

신안군 항일농민운동 참여자 8명이 국가보훈
처로부터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다.

1일 신안군에 따르면 제104주년 삼일절 기념
식에서 일제 불의에 항거한 섬사람들의 의기가
높이 평가받아 건국포장 2명, 대통령표창 6명
등 독립유공자 서훈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새롭게 지정된 독립유공자는 압해읍 대화도
소작쟁의 참여자 2명, 자은도 소작쟁의 참여자
4명, 지도읍 소작쟁의 참여자 2명이다.

신안군의 항일농민운동과 관련해 서훈을 받
은 독립유공자는 지난 2021년 20명, 지난해 13
명 등 총 33명이다.

신안군 6개 지역에서 발발한 소작쟁의 운동
은 지난 1920년대 친일 지주에 맞서 사람답게
살 권리를 주장한 항일농민운동이다.

올해 100주년을 맞이하는 압태도 소작쟁의
가 국내·외 널리 알려진 가운데 전국적인 대규
모 소작쟁의를 일으키는 계기가 된 역사적인 항
일농민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그동안 소작쟁의 운동을 재조명하고 참

여자 명예회복을 위해 2020년 (사)신안군농민
운동기념사업을 설립하고 역사 재조명과 항일
운동 참여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힘써 오고
있다.

특히 학술세미나를 연데 이어 신안군항일농
민운동 총서 발간, 자료수집 및 서훈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확인된 항일농민운동 참여자 중 수
감기록이 있는 111명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을 마쳤으며, 오는 8.15 광복절과 11월17
일 순국선열의 날 추가 서훈이 기대된다.

신안군은 경술국치 이후 농민운동, 만세운
동, 임시정부 활동 등 독립운동에 앞장선 독립
운동가 신규 발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
침이다.

현재까지 국가기록원을 통해 215명의 기록
물과 85명의 제적부를 찾아냈으며, 관련자 후
손이 확인되면 선조의 업적을 전하고 유공자 서
훈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우량 군수는 “잊혀질 뻔한 역사의 조각을
찾아내는 것을 시작으로 일제의 불의에 맞선 숭
고한 선조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독립유공자 포
상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여기에 안주하지 않
고 온 군민이 힘을 모아 대한의 독립을 외쳤던
많은 섬사람들의 외침을 찾아내고 밝혀 나가겠
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강진, 가수 문희옥 홍보대사 위촉

강진군이 전통 트로트 여제, 가수
문희옥을 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강진군은 최근 4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
51회 강진정자축제 개막식에서 홍보
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문희옥은 1987년 데뷔해 올해로
36년째 활동하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
아왔다. ‘성은 김이요’, ‘사랑의 거

리’, ‘강남 멋쟁이’ 등 다수의 히트곡
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 가수다. 군은
앞으로 2년 동안 가수 문희옥이 다양
한 군정 홍보 활동을 통해 강진군의
위상을 높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가수 문희옥은 “남편의 고향이자
청자의 산실인 강진군 명예홍보대사
가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
다. /강진=한태선 기자



농협강진군지부, 튀르키예에 구호물품

농협강진군지부(지부장 김덕삼)
와 관내 농·축협 임직원들은 최근 대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
르키예 국민을 위해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달물품은 농협 강진군지부
와 강진농협, 강진남부농협, 도암농
협, 강진한들농협, 강진완도축산농
협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마련

됐으며, 방한용품과 위생용품, 생필
품 등으로 구성됐다.

김덕삼 지부장은 “이번 행사에 참
여한 강진군 관내 농·축협 임직원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피해지역의 조
속한 복구와 재건이 이뤄지길 기원하
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



농협-진도군선관위, 공명선거 캠페인

농협 진도군지부는 농협중앙회
합감사위원회, 진도군선거관리위원
회와 함께 최근 진도군 진도읍 조금
시장에서 오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공명선
거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선거 후보등록일 이
후 본격적으로 도래한 선거활동 기간
에 공명정대한 조합장 선거를 홍보하

기 위해 추진됐으며, 참석자들은 조합
원들에게 캠페인 홍보문구가 담긴 떡
과 책자를 배부했다.

주영규 지부장은 “이번 행사는 농
협이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평하
게 전개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
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